

"아끼지 않는 내리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일시 _ 2018. 4. 28. (토) 12:30~19:30

장소 _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B1층)

주최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후원 | 인하대학교, 한국심리학회

- 한국건강심리학회 : 건강심리전문가 연수평점 1시간 40분 인정
- 한국발달심리학회 : 발달심리사 교육수련 2시간 인정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심리사 3시간 인정
-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 인사조직심리사 워크샵 참석 인정
- 한국상담심리학회 : 학술사례심포지움 1회 인정



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봄꽃향기 가득한 희망찬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2018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가 4월 28일(토)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첨단에 서 있지만 '저출산 시대'가 아닌 '무출산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과 효도'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닌 회피하고 싶은 심리 등.....

한국사회 가족가치가 변동하는 현상들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춘계학술대회는

노부모 부양과 효도의 참된 가치와 한국사회의 진정한 가족가치를 탐색해보는 연극 공연과 토크 콘서트, 현악4중주 및 사진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학문이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내는 창조적인 장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후원해주신 여러 단체 및 자격증 취득, 유지와 관련된 수련시간을 인정해 주신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기운이 움트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8년 3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박영신 배상

목 차

학술대회 일정	1
사회자 소개	2

제 1부 [연극공연: 늙은 부부 이야기]

연극공연	5
------------	---

제 2부 한성열 교수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괜찮아, 이제 여한이 없어!”]

토크 콘서트	11
--------------	----

제 3부 Man on the String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19
-----------------------------	----

포스터 발표 논문

- 청소년의 효에 대한 인식: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 김동수,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조교수) 21
- 소아암 생존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 김의연, 이문영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인하대 일반대학원) 23
-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및 수면의 질
/ 김의연, 조은형, 원준재 (미사교심리연구소, 인하대학교, 인하대대학생상담센터) 25
- 성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의식: 직업유형별, 성별분석
/ 박영자, 한미순, 박영신 (선박안전기술공단) 27
-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 손주연, 박영신, 신미자 (인천새말초등학교) 29
- 부모 죽음 이후 자녀의 애도경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 유경자,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조교수) 31
-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성별, 배우자 유무별
/ 전성숙, 박세호, 박영신 (인하대학교) 33
-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심리: 학업성취별 성별 분석
/ 차연실, 이영숙, 박영신 (인하대학교) 35

사진 전시회

『INDIA 그리고 Ladakh』 寫眞展	39
------------------------------	----

학술대회 일정

12:30 ~ 13:00 등록

제 1부 13:00 ~ 15:00

사회 : 최 은 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13:00~13:10	개회사 : 박영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인하대 교수) 축 사 : 김세용 (QBS 대표이사)
13:10~14:40	연극공연 : 극단 해피아이 제 목 : 늙은 부부 이야기
14:40~15:00	포스터 발표 및 휴식

제 2부 15:00 ~ 17:10

사회 : 주 경 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00~16:50	한성열 교수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괜찮아, 이제 여한이 없어!”
16:50~17:00	질의 및 응답
17:00~17:10	휴식시간

제 3부 17:10 ~ 19:30

사회 : 최 중 숙 (인하대학교)

17:10~18:10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 Man on the String
18:10~18:20	우수포스터 시상
18:20~18:30	행운권 추첨 및 폐회사
18:30~19:30	저녁만찬 : (주) QBS 김세용 대표이사 초청

※ 행운권 : 포스터 발표장에서 발표자로부터 행운권을 받을 수 있음.

2018 춘계학술대회 사회자 소개



최은수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연구방법론, 사회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행복연구센터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추적하는 SNU 종단연구를 비롯하여 한국인 중장년 종단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 정서 경험 및 표현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형성하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경필 학술위원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위원장이며,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한국청소년학회 분과프로그램위원,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정책마스터플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타 다양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산하 기관의 정책연구 및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이라는 문화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생애발달적 학습경험과 소외 및 저항의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International Society for Cultural-historical Activity Research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성인도래기 청년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중숙 총무이사

인하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심리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41년간 초등교육에 재직하였고 창의인성교육과 교육복지, 행복교육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였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종단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CEM(2015), 한국교육심리학회(2016), AASP(2011,2017)등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인 행복과 삶의 질, 존경, 스트레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 1부

[연극공연: 늙은 부부 이야기]



연극공연 주제: 늙은 부부 이야기



- 작: 위성신
- 연 출: 백재이 [다락 소극장 대표]
- 조 연 출: 윤현주 [극단해피아이 단원]
- 출 연: 신철연, 최미라
- 무대감독: 진정하 [놀이와축제 대표]
- 음향감독: 이지은[극단해피아이 단원]
- 러닝타임: 80분
- 공연제작: 극단 해피아이

1. 배경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흐르면서, 무대 위 늙은 부부의 인생사계도 함께 흐르는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의 가족애와 부부애를 보며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일상이 어느 마지막 순간 되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과 그리움의 계절이었음을, 아주 잠시나마 모여 관람하는 이들도 고개 끄덕이며, 지금현재를 살고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한 번 더 새기게 되기를 바래본다.

'육체는 늙을지언정 마음만은 늙지 않게 한 것은 조물주의 실수'라고 했던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설렘은 퇴색되지 않고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다. 순수함과 설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노년은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사랑과 젊음의 사랑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소외된 삶의 단편들을 보며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낌없는 내리 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2. 공연내용

무대는 인천의 한 주택가. 낮은 남장너머로 아담하면서도 정갈한 마당이 펼쳐져있다. 평상위엔 소쿠리에 담긴 나물이 가지런하다. 마루위로 두 개의 방문이 보인다. 주인은 보이지 않는다.

한 생을 살면서 온갖 것을 다 내어주고는 다시금 땅으로 돌아가는 삶.

봄 날엔 새순의 생명을 알려주고 여름엔 태양빛을 온전히 머금고, 그리고 제 할 일을 다하고 겨울엔 땅의 자양분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다. 고만동과 이점순의 사랑을 계절별로 사랑의 생성과 성장 성숙 그리고 이별로 둘의 사랑을 보여준다.

봄: 고만동은 아들네에 얹혀사느니 독립하기 위해 욕쟁이 할멈 이점순 집에 세를 얻기 위해 마당으로 들어선다. 고만동의 철부지 짓이 알미워 방값을 계속 올리지만 고만동은 이점순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티격태격 하며 둘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서로 간 연정을 품게 된다.

여름: 이점순과 고만동의 질투와 아픔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며 서로 간의 정은 점점 깊어지고, 둘은 철지난 결혼생활로 들뜨지만 이점순은 점점 아파간다.

가을: 고만동은 이점순은 결혼반지만 준비한 채 달을 주례 삼고, 별을 하객삼아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이라고 해봤자 고만동의 등 뒤에서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다 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뿌듯하고 애뜻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즐겁게 살자고 서로 약속하지만 하늘이 허락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을 둘은 알고 있다.

겨울: 이점순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홀로 남은 고만동, 운전면허를 뺏지만 같이 다닐 이점순이 없음에 홀로 눈물짓고, 눈 내리는 겨울날 이점순이 지어준 옷을 입고, 고만동은 춤을 추며 대문을 나선다.

3. 공연기획의도

노년층은 과거엔 ‘꼰대’라고 불렸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툭딱충’이라 불리는 것 같다. 격동의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닦은 세대이건만 그들에게 젊은 세대는 존경 대신 ‘꼰대’ 또는 ‘툭딱’이란 비하용어를 퍼붓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온 인생을 바친 결과 가난은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사랑이나 문화는 이미 남의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 자식들은 이미 늙어 버린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기껏 자녀 돌보기, 김장하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만 기대하고 그들의 사랑이나 감정은 무시하기 일쑤다. 이렇듯 노년의 남자와 여자가 어느 봄날 만났다. 어느 청춘과 다르지 않다. 서로 간보고 찢어보고 밀고 당기기도 수준급으로 해보다가 확실하게 필 꽃히며 진도 나간다. 그들에게 열정의 여름이 다가오고 결실의 계절 가을도 지나고 이별의 겨울을 맞는다. 겨울은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늙은 부부 고만동과 이점순은 또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새로이 만남을 꿈꾼다.

이 작품은 상처한지 10년이 훌쩍 넘는 노인들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들이 보기엔 욕쟁이 할멈, 바람기를 주체 못하는 늙은 주책바가지 할아버지이지만 그들에게도 어린시절의 감성과 젊은 시절의 패기 그리고 외로움은 지금 젊은 세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서로 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정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4. 등장인물

고만동: 고만동, 인천의 만석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까불까불 하지만 여린 내면의 소유자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 한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기 저기 기웃 거리지만 신통치 않다. 가족들의 소외와 무시로 사랑을 찾아 힘든 여정을 떠나 결국 새로운 사랑을 만나 어린 시절의 설렘과 순수함을 되찾는다.

이점순: 이점순. 그녀의 고향은 목포다. 전형적인 목포아가씨로 인천으로 시집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세 딸을 키워냈다. 욕쟁이다. 거칠고 우악스러워 보이거나 소녀의 감성을 지닌 여인네다. 평생 남이 해준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 속에서 억척스레 딸 셋을 키워내다 보니 어느덧 욕쟁이 할멈이란 소릴 듣는다. 고만동을 만남으로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젊고 순수한 여인으로 점점 변화한다.

5. 참여배우



신철연(고만동 역)

- 극단 해피아이 소속 배우
- C&C (Combination & Communication) 연극 뮤지컬동아리 대표
- 現 인천 미산초등학교 교사
- 前 인천 교사극회 회장
- 출연: 밥, 정의의 사람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아빠와 함께, 어제의 용사들 외 다수



최미라(이점순역)

- 극단 해피아이 대표 및 연출
- 現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인활동
- 한국 뉴욕주립대(SUNY) 영어토론연구소 선임 연구원
- 출연: 한씨연대기, 전쟁땡! 음악쫓!, 해가지면 달이뜨고, 울밖에 선 봉선화, 고양이 춤, 유불령무불령, 별난 가족, 늙은 부부이야기 외 다수
- 연출: 인천영어교사극회 상임연출, 춘향전, Annie, 흥부네 대박났네, 맘마미아 외 다수

6. 작품의 시사성

이 작품은 부부, 그러나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다. 노인들의 짧은 만남과 사랑 그리고 긴 이별을 소재로 한다. 연륜이 쌓인 중후한 사랑이 아니다. 젊은이처럼 서투른 사랑을 한다. 이 서투르고 애달픈 사랑을 통해 젊은이와 노인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식과의 불화로 집을 뛰쳐나온 아버지, 시집간 딸에게 아직도 김치를 대 주는 홀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노년이 가족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엿 볼 수 있다. 자식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 줘야 하는 부모로서의 위치만 요구하고 부모의 외로움과 로맨스는 참으라고 강요하는 자식들의 틈바구니에서, 곳곳이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노인의 모습에서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멋진 노인 상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낌없는 내리 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7. 극단 해피아이 소개

2004년 “행복한 나 【Happy I】 , 내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극단 해피아이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극단이 아닌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로 행복을 찾아가는 작업을 한지 벌써 15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극단 ‘해피아이’는 일반 연극 공연 외에도 아동과 전문 연극인이 함께하는 영어 뮤지컬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천관내 교육청 축제진행 및 초청공연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 지치지 않고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웃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로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극단해피아이 연혁

- 2004. 04. CnC (Communcation & Combination)영어연극모임 창단
- 2004. 05. 로미오 & 줄리엣 영어연극 대본각색
- 2004. 11. 로미오& 줄리엣 공연 (인하대 인문과 대학 소강당)
- 2005. 05. 어린이날 특집 Musical English ‘Snow White’ 공연 (연수구청)원어민과 함께 공연
- 2005. 12. Musical English 어린이 단원 정기 발표회 ‘흥부 & 놀부’ (연수구청)
- 2006. 03. 해피아이 (HPI) 대표 학산문화원, 도화초교 Musical English 교실운영
- 2006. 04. 해피아이 (HPI) 대표 인천연극제 “해가지면 달이 뜨고” 여주인공 출연
- 2006. 06. 해피아이 (HPI) 극단 개인인가 취득(대표자 최미라)
- 2006. 06. 해피아이 (HPI) 대표 학산문화원 Musical English 작품발표 지도
- 2006. 07. 남부교육청 주관 “영어축제 한마당” 도화초교 작품발표지도
- 2006. 07. 청소년국제교류 태극공연(인천남구청, 연수구청지원) ‘흥부와 놀부’
- 2007. 07. 남부 교육청 주관 “영어축제 한마당 2회” 도화초교 작품발표지도
- 2007. 08. 학산문화원 ‘Musical English 춘향전’ 공연
- 2007. 09. 학생교육문화회관 ‘Musical English 춘향전’ 공연
- 2007. 09. 도호부청사 한가위 한마당 ‘Musical English’ 초청공연
- 2008. 05. 인천 평생학습관 동춘동 ‘춘향전’2탄
- 2008. 09. 도호부청사 한가위 한마당 ‘춘향전’2탄 마당놀이 초청공연
- 2008. 10. 장수동 청소년 수련관 ‘춘향전’2탄 초청공연
- 2008. 10. 삼목 초등학교 ‘춘향전’2탄 초청공연
- 2008. 10. 공항공사 SKY 축제 - School Show ‘Snow white’
- 2009. 09. 공항공사 SKY 축제 - School Show ‘Beauty & the Beast’
- 2009. 11. 삼목 초등학교 ‘흥부& 놀부’ 초청공연
- 2010. 08. 헤어스프레이 영어뮤지컬 정기공연
- 2011. 08. 공항공사 SKY 축제 - School show ‘Annie’ 삼목초등학교 작품지도
- 2011. 10. 삼목 초등학교 ‘애니[Annie]’ 초청공연 및 남부교육청 초등부 영어축제
- 2011. 10. 인천 공향중학교 ‘맘마미아’작품지도-남부교육청 중등부 영어축제
- 2011. 10. 인천 동부교육청 초등영어교사극회 ‘헤어스프레이’작품지도 및 공연
- 2012. 07. 인천 예총 초청공연 ‘애니[Annie]’ -문학 시어터
- 2012. 09. UN GCF 유치 흥보 / 사랑 한마음 송도축제 주관 무대연출
- 2013. 10. 인천 동부교육청 초등영어교사극회 ‘흥부가네 박터졌네’ 작품지도 및 공연
- 2014. 09. 문학시어터 극단해피아이 정기공연 ‘춘향전’
- 2014. 11. 인천 동부교육청 초등영어교사극회 ‘맘마미아’ 작품지도 및 공연
- 2015. 07. 문학시어터 극단 해피아이 정기공연 ‘Annie’
- 2015. 10. 인천청량초등학교 초청공연 Annie
- 2016. 06.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맘마미아 공연 연출
- 2016. 07. 극단 해피아이 정기공연 사랑티켓 선정 ‘흥부네 대박났네’ 공연/문학시어터
- 2016. 08. 전남 영암군 초청 영암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뮤지컬 캠프 ‘Annie’ 공연
- 2016. 09. 필리핀 바기오 시 문화재청 초대 ‘바기오데이’ 흥부네 대박났네 공연
- 2016. 10. 인천청량초등학교 초청공연 ‘흥부네 대박났네’ 공연
- 2016. 11. 공항공사 주관 학생 지역특성화 사업 UCC공모전 대상 수상
- 2017. 10. 인천청량초등학교 초청 ‘헤어스프레이’공연

제 2부

한성열 교수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괜찮아, 이제 여한이 없어!”]



한성열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괜찮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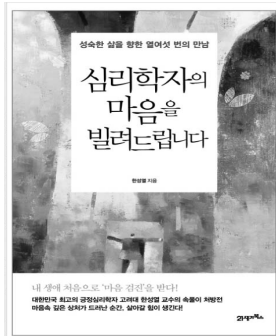
□한성열 교수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미국 시카고대학교 심리학박사(現)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상담교육원 만남과풀림 원장
- 상담목회아카데미 예상 원장
- 한국생활상담협회장
- 서울생명의전화 이사(前)
- 한국드라마치료협회장
- 한국치유상담협회 부회장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회장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 (YouTube) CBS 아카데미쇼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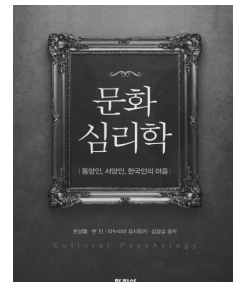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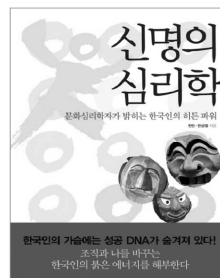
□저서

-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21세기 북스)



□공저

- 신명의 심리학
- 문화심리학 || 동양인, 서양인, 한국인의 마음



□역서

- 성공적 삶의 심리학
-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

□ 학술 논문

1986. 노인들의 과거에 대한 투자와 회상의 기능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atisfaction and Flow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외 다수
노년기는 손실(損失)의 시기이자 동시에 해방(解放)의 시기이다. 잃는 것은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 독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으로 해방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즉 심리적으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음을 붙들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과 화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즉 마음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풀고 단지 긍정적인 사람이나 사건으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전생애발달심리학자 에릭슨(E. Erikson)은 노년기를 ‘통합감(統合感) 대 절망감(絶望感)’의 시기라고 정의 한다. 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모든 과업의 진행과정이 그렇듯이 ‘인생살이’의 여정도 마지막을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整理)하는 시간을 갖기 마련이다.

행복한 일만 겪은 사람 거의 없어

한평생 살아오면서 즐겁고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일만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행복해보이고 어려움 없이 팔자 좋게 살아온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과 후회와 회한(悔恨)의 감정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겨를이 없고, 또 직면하고 싶지 않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가슴 속에 묻어두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 감정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애써 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화되지 않은 채 묻혀있었을 뿐이었다.

노년기는 진정으로 자유스러워지기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기이다. 이 노년기의 발달과제를 잘 해결하면 ‘통합감’을 느낀다. 통합감은 “비록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과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를 돌아보고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끼거나 또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부정적 사건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화해를 해야 한다. 자신을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도 용서해야 한다. 결과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용서할수록 그 만큼 더 많이 통합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하면 할수록 “이제는 죽어도 여한(餘恨)이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통합감 얻기 위해 ‘회상’을 자주 한다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노인들은 주로 ‘회상(回想)’을 많이 한다. 노인들이 자주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은 남아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killing time)’ 그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와 화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 통합감을 얻기 위한 ‘심리적 과제(課題)’를 풀고 있는 것이다.

홀로 사는 한 할머니가 우연히 종교단체에서 실시한 집단상담 형식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편과 살면서 이미 속이 썩을 대로 썩었다. 비록 남편이 몇 년 전에 죽었지만 남편 생각이 나기만 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고는 했다. 이 할머니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남편에게서 해방되

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는 계속 부정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모임에 참석한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속상했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한 맺힌 사연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속이 후련해지는 모습을 본 이 할머니도 자신의 속이야기를 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이 할머니는 사별한 남편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바람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는 하나뿐인 딸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사연이었다. 이미 눈물이 말라붙었는 줄 알았는데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울분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남편에 대한 울분을 속 시원히 털어놓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편과의 즐거운 추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남편과는 불행했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나자 이제야 남편을 용서하고 편하게 떠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남편에게서 진정 해방되었다.

만약 통합감을 얻지 못하면 노인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절망감은 "회한과 미련이 많은 삶인데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다. 이들은 실패투성이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보려고 계속 일에 집착하고 조바심을 낸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욕심을 부린다. 흔히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이라고 부르는 '노욕(老慾)'과 '노탐(老貪)'은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절망감은 종종 '혐오감

(嫌惡感)'을 동반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노인들은 사소한 일에서도 노여움을 느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말썽을 참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은 절망하는 노인들은 주위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마음의 연금술 얼마든지 가능해

노인들이 평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과거를 편안히 회상(回想)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간에는 과거의 부정적 사건과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고나 비난을 금하여야 한다. 대신에 그동안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드려야 한다.

위에서 예를 든 할머니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면 뒤따라 긍정적인 감정이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일부로 멈추고 자꾸 "잊어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잊을 수 있었으면 자신이 벌써 잊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제일 괴롭기 때문이다. 부정적 사건이나 감정은 "잊어라"고 억박질러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장소에서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그 강도(強度)는 약해진다. 이 과정이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는 절망감에서 점차로 벗어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통합감으로 변해간다. 과거로 돌아가 실패한 인생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건에 붙인 의미는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치유력(治癒力)'이다. 절망감을 통합감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鍊金術)'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낌없는 내리 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아낌없는 내리 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제 3부

Man on the String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Man on the String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Man on the String은 4명의 남자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있는 현악4중주 팀입니다.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Man on the String은 클래식 뿐 아니라 영화음악, 가요,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분위기와 계절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주제'를 정해 연주하는 것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이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함께 진행합니다.



1 바이올린 이기준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하바스트링앙상블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2 바이올린 이도영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석사(Master)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쿨 2위
- 일본대사관 주최 음악연주제 1위
- Man on the String 단원



비올라 이홍우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첼로 이기석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앙상블 "Co-men" 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아낌없는 내리 사랑, 갚을 길은 없는가?”

노부모 부양과 효도,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동

1. Eine kleine Nachtmusik – W.A Mozart

모차르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대중적인 곡으로 손꼽히고 있다. 밝고 화려한 선율이 인상적이며, 작곡가 특유의 발랄한 곡 분위기 때문에 광고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세레나데’라는 의미를 지닌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닌 귀족의 연회를 축하하거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2. 장난감 교향곡(Toy Symphony)中 3악장 – Leopold Mozart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

어느 교향곡과는 다르게 내용이 무겁지 않고, 현악 합주에 새소리(뽀꾸기, 나이팅게일, 메추라기)와 장난감 악기(나팔, 북, 트라이앵글, 딸랑이 등)를 곁들여 사용했는데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음악 자체는 교향곡이라기보다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오락음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G선상의 아리아 – J.S.Bach

장중한 분위기에 가득차고 선율이 아름다워 널리 애청되고 있다. 원곡은 1730년경에 작곡되었으며 1871년 빌헬름 (1845~1900)에 의해 편곡되었는데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현(G선)만으로 연주되는 데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4. Minuet in G Major BWV 116 – J.S.Bach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아내를 맞아들인 바흐의 가정은 늘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어느 음악가의 아내보다도 남편의 음악성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다. 바흐는 아내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즉흥적인 음악을 자주 연주했고, 또한 바흐는 그런 음악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작은 음악수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수첩’이다.

5. Frühlingslied(봄노래) – F.Mendelssohn

멘델스존은 1830년부터 15년 동안 가사가 없는 노래 라는 뜻의 ‘무언가를 작곡했는데, 봄노래는 이중 무언가 5권 작품번호 62에서 6번째 곡이다. 휴대폰 연결음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

6. 향수 – 김희갑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낙원에 대한 지향을 시로 표현한 정지용의 <향수> 가 가사로 쓰인 한국의 대중가요.

7. Liber Tango – A. Piazzolla

리베르 탱고는 스페인어로 자유와 탱고를 합친 말이며, 60-70년대 고전 탱고에 클래식을 접목시켜 탱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었다.

8. Adiós Nonino(안녕, 아버지) – A. Piazzolla

1959년 뉴욕에서 아버지 “빈센티 노니노 피아졸라”가 죽은 뒤 며칠 후 그를 추억하며 작곡한 작품이다.

피아졸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곡 중의 하나로, 다양한 연주자가 가지각색의 편곡으로 녹음하기도 했다.

포스터 발표 논문



청소년의 효에 대한 인식: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김동수,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조교수
kimdongsu77@hanmail.net, sks@sang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효에 대한 인식, 봉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소년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이 참여하는 노인 대상 자원봉사에 따라 효 인식, 봉사 만족도, 부모 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에 따른 논의와 결론이 도출되었다.

연구목적

최근 과거와는 달리 자기희생이라는 전통적인 효의 관점에서 벗어나 부모부양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세대 상호간의 행복달성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효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노부모 부양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따라 청소년의 효도, 즉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과 이후 부모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의 효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망해 봄으로써 효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 따라 효 인식, 봉사만족도, 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청소년의 효 인식과 봉사만족도는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연구방법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소년 169명을 대상으로 노인대상 자원봉사 활동 유형과, 성규탁(1994)의 연구 변인을 이보현(2006)이 사용한 효 인식 척도, 그리고 Tuckman과 Lorge(1952)의 척도를 오세룡(2002)이 수정·보완한 부양의식 척도, Francies(1982)의 봉사만족도 척도를 조휘일(1990)과 정태자(2010)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신뢰도 분석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봉사활동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F-검정(ANOVA)과 사후분석(Sheffe)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효인식과 봉사만족도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이 참여한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 따라 효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 따라 이후 부모 부양의식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효 인식과 봉사만족도($r=.522, p<.001$), 효 인식과 부모 부양의식($r=.418, p<.001$)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효 인식은 부모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121$), 봉사만족도는 부모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568, p<.001$).

논의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으로 경로효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태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과의 보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조부모 등 이전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식적·정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교육에 더하여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형태의 교육 활동이 추가된다면 청소년들의 어른 세대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효 인식, 부모 부양의식과 관련된 도덕, 윤리, 문학 등의 교과 교육과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을 접목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오세룡 (2002).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현 (2006). 청소년의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부모 부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자 (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 개발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휘일 (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Tuckman, J., & Lorge, I. (1952). Attitudes toward older work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6(3), 149-153.
- Francies, G. R. (1982). *The volunteer needs profile: development and testing a seven scale profile for use in placing volunteers in human service agencies*. University of Wisconsin-Green Bay.

소아암 생존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김의연, 이문영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인하대 일반대학원

comsin2@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과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중재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소아암 생존자 관련 중재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총3편의 중재연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에서는 포커싱 프로그램(김주영, 2017)과 인터넷 기반 심리중재 프로그램(Seitz, et al., 2014a, b)을 주로 사용했다. 프로그램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외상후 성장의 가능성을 높였다. 소아암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최근 소아암 치료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한국은 74%(Korean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0), 미국은 80%(American cancer society, 2016) 이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존자의 장기적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김신정, 강경하, 박선정, 이명남, 김영희, 2013).

소아암 생존자 중 약 10%에서 2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다(임수진, 2015). 한편 암의 발병과 치료과정은 삶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소아암 생존자들에게 긍정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Arpawong, Oland, & Milam, et al. 2013).

소아암 생존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외상후 성장의 심리적 개입을 모색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아암 생존자의 스트레스 관리와 외상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상후 성장과 스트레스 관리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

논문검색 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설정하였다. 검색어는 '외상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소아암(child cancer)',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주요어로 하였다. 검색엔진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KoreaMed, Scopus, Web of Science, PubMed를 사용하였다. 총 1,62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 소아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다시 외상후 성장과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중재연구를 실시한 3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김주영(2017)에 의하면, 소아암 생존자(13~19세, 남자 16명, 여자 5명), 21명(중재집단 11, 통제집단 10)을 대상으로 포커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포커싱 프로그램은 포커싱 체험을 돕기 위해 포커싱 무브먼트 활동, 바디스캐닝, 수용촉진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재집단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자기자각의 변화, 대인관계깊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이해, 유연성,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변화, 신체와 정서적 스트레스, 자기조절양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Seitz, Knaevelsrud, Duran, Waadt, & Goldbeck (2014)은 소아암 생존자(20-36세, 남 6, 여 14)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넷 기반 심리중재 Onco-Step를 개발하여 실행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재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뒤를 돌아보기' 그리고 암의 재발과 진행과 관련된 두려움 대처를 돕는 '앞을 보기'와 같은 두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소아암 생존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했다.

Seitz, Knaevelsrud, Duran, Waadt, Loos & Goldbeck (2014)에 의하면, 20명의 참가자(평균연령 27.3±4.8년, 진단 후 13.8±4.7년, 여성 70%)가 인터넷 기반 심리중재Onco-Step에 참여하였다. 중재 후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진행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논의 및 결론

소아암 생존자의 외상후 성장과 스트레스 관리를 실시한 중재연구는 총 3편이었다. 중재프로그램은 외상후 성장을 증진시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생존자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와 외상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암환자에게 스트레스 관리가 스트레스 완화 및 외상후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미향, 박정숙, 2016)를 일부 지지했다. 앞으로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스트레스)을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성장을 돕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참고문헌

- 김신정, 강경아, 박선정, 이명남, 김영희 (2013). 의미요법 교육 프로그램이 사춘기 초기 암환아의 삶의 의미발견에 미치는 효과. **중앙간호연구**, 13(1), 49-57.
- 김주영 (2017). 소아암 생존자를 위한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향, 박정숙 (2016). 암환자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중재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중앙간호연구**, 16(1), 9-19.
- 임수진 (2015). 소아암 생존자의 건강 관련 요구와 삶의 질. **중앙간호연구**, 15(4), 246-255.

- Seitz, D. C., Knaevelsrud, C., Duran, G., Waadt, S. & Goldbeck, L. (2014a). Internet-Based Psychotherapy in Young Adult Survivors of Pediatric Cancer: Feasibility and Participants' Satisf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9), 624-629.
- Seitz, D. C., Knaevelsrud, C., Duran, G., Waadt, S., Loos, S. & Goldbeck, L. (2014b). Efficacy of an internet-based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for long-term survivors of pediatric cancer: a pilot study. *Support Care Cancer*, 22, 2075-2083.
- Arpawong, T. E., Oland, A., & Milam, J. E., et al. (2013). Post-traumatic growth among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DOI: 10.1002/pon.3286
- Korean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0). *Annual report of cancer statistics in Korea*
<http://ncrs.cancer.go.kr/index.do>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및 수면의 질

김의연 조은형 원준재
미사교심리연구소 인하대학교 인하대 대학생상담센터
comsin2@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정신건강과 수면의 질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대학생 301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스마트폰 중독척도, 스트레스와 대처척도, 정서척도, 수면의 질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 집단별로 스트레스, 부정정서, 수면의 질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지각은 잠재적위험군이 일반군과 고위험군보다 높았다. 부정정서는 고위험군이 일반군과 잠재적위험군보다 높았다. 수면의 질은 잠재적위험군이 일반군과 고위험군보다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스마트폰은 81.6%(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TV, 음악, 게임, 인터넷 등을 한 번에 사용할 수 편리한 기능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반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사용으로 인한 중독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의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9.9%로 대단히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높은 이용률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함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정신건강과 수면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중독사용자는 스트레스 반응인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황경해, 유양옥, 조옥희, 2012), 수면의 질이 낮았다(Soni, Upadhyay, & Jain, 2017).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과 수면의 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보다 많은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 정서, 수면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대학생 301명(남 170, 여 131; 평균연령

22.3세)이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 11월이었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이다. 총점을 기준으로 고위험군(44점 이상), 잠재적위험군(40점 이상 - 43점 이하), 일반군(39점 이하)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Fava, Ruggiero와 Grimley(1998)가 개발한 스트레스와 대처검사(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서척도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를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변인별 10문항이다. 수면의 질은 Buysse, Reynolds, Monk, Berman와 Kupfer (1989)가 개발한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수면질, 입면시간, 수면시간, 수면률, 수면곤란, 수면제사용, 일일중각성곤란의 7개 하위변인으로 총 19문항이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79에서 .84로 양호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일반군 248명(82.1%), 잠재적위험군 38명(12.6%), 고위험군 15명(5%)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스마트폰 중독집단별로 스트레스, 정서, 수면의 질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지각($p < .05$), 부정정서($p < .01$), 일일중각성곤란($p < .01$), 수면의 질($p < .05$)에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스트레스 지각은 잠재적위험군이 일반군과 고위험군보다 높았다. 부정정서는 고위험군이 일반군과 잠재적위험군보다 높았다. 수면의 질은 잠재적위험군이 일반군과 고위험군보다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스마트폰 잠재적위험군은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는 긴장감이나 심리적 불편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지각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이 부정정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휴대성으로 인하여 부정정서를 경험할 때 스마트폰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Kwon & Paek, 2016)를 지지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Soni, et al., 2017)을 지지했다. 하지만, 잠재적위험군이 고위험군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낮았던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요약 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 주요내용. KISD STAT Report.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성인스마트폰중독자가 진단척도.
- 황경해, 유양옥,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10)**, 365-375.
- Busse, D. J., Reynolds, C. F., Monk, T. H., Berman, S. R., & Kupfer, D. J. (1989).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a new instrument for psychiatric practice and research. *Psychiatry Research, 28*(2), 193-213.
- Fava, J. L., Ruggiero, L., & Grimley, D. M. (1998). The development and structural confirmation of the 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1*(6), 601-611.
- Kwon, Y. S. & Paek, K. S. (2016).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9*(41), DOI: 10.17485/ijst/2016/v9i41/103844
- Soni, R., Upadhyay, R., & Jain, M. (2017). Prevalence of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associate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edical Sciences, 5*(2), DOI: <http://dx.doi.org/10.18203/2320-6012.ijrms20170142>
- Watson, D., Clark, L.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성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의식: 직업유형별, 성별분석

박영자, 한미순, 박영신
선박안전기술공단
dwjm04@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의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성인 1,079명(초등교사 400, 공무원 400, 연구원 279; 남 616, 463)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신뢰 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직업유형별로는 연구원이 성별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무조건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둘째, 가족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범 안 됨을 배우자는 책임감 부족, 자녀는 의견차이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의식을 직업유형별, 성별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성인 총 1,079명(초등교사 400, 공무원 400, 연구원 279; 남 616, 여 463)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 신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희생함, 존경함, 성실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 성별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 모범이 안 됨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버지는 권위적임, 어머니는 의견차이라고 응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둘째,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조건 신뢰한다는 반응이 직업유형별, 성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신의 이유로는 의견 차이와 소통이 안 됨을 지적하였다.

셋째, 배우자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실함, 사랑하니까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초등교사, 공무원에 비해 연구원이,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무조건 신뢰하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 책임감 부족과 의견 차이를 지적하였다.

<표 1> 직업유형별, 성별 아버지를 신뢰/불신하는 이유

	전체(%)	직업유형별			성별	
		초등교사(%)	공무원(%)	연구원(%)	남(%)	여(%)
1.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 신뢰	350 (49.2)	131(42.0)	110 (49.8)	109 (61.2)	204 (53.8)	146 (44.0)
2. 희생함	81 (11.4)	38 (12.2)	20 (9.0)	23 (12.9)	46 (12.1)	35 (10.5)
3. 존경함	78 (11.0)	32 (10.3)	34 (15.4)	12 (6.7)	46 (12.1)	32 (9.6)
4. 성실함	78 (11.0)	40 (12.8)	25 (11.3)	13 (7.3)	37 (9.8)	41 (12.3)
5. 든든함	49 (6.9)	27 (8.7)	14 (6.3)	8 (4.5)	23 (6.1)	26 (7.8)
6. 모범이 안됨	45 (6.3)	25 (8.0)	13 (5.9)	7 (3.9)	14 (3.7)	31 (9.3)
7. 권위적임	30 (4.2)	19 (6.1)	5 (2.3)	6 (3.4)	9 (2.4)	21 (6.3)
총합계	711 (100.0)	312(100.0)	221 (100.0)	178 (100.0)	379 (100.0)	332 (100.0)

<표 2> 직업유형별, 성별 어머니를 신뢰/불신하는 이유

	전체(%)	직업유형별			성별	
		초등교사(%)	공무원(%)	연구원(%)	남(%)	여(%)
1. 어머니에 대한 무조건 신뢰	346 (48.6)	131 (42.0)	111 (49.6)	104 (59.1)	203 (53.8)	143 (42.7)
2. 희생함	142 (19.9)	73 (23.4)	40 (17.9)	29 (16.5)	70 (18.6)	72 (21.5)
3. 존경함	66 (9.3)	33 (10.6)	20 (8.9)	13 (7.4)	34 (9.0)	32 (9.6)
4. 성실함	60 (8.4)	23 (7.4)	26 (11.6)	11 (6.3)	30 (8.0)	30 (9.0)
5. 든든함	58 (8.1)	34 (10.9)	15 (6.7)	9 (5.1)	24 (6.4)	34 (10.1)
6. 모범이 안됨	29 (4.1)	11 (3.5)	11 (4.9)	7 (4.0)	13 (3.4)	16 (4.8)
7. 의견차이	11 (1.5)	7 (2.2)	1 (.4)	3 (1.7)	3 (.8)	8 (2.4)
총합계	712 (100.0)	312 (100.0)	224 (100.0)	176 (100.0)	377 (100.0)	335 (100.0)

<표 3> 직업유형별, 성별 자녀를 신뢰/불신하는 이유

	전체(%)	직업유형별			성별	
		초등교사(%)	공무원(%)	연구원(%)	남(%)	여(%)
1. 자녀에 대한 무조건 신뢰	301 (58.3)	135 (53.8)	97 (61.0)	69 (65.1)	178 (62.7)	123 (53.0)
2. 사랑스러움	89 (17.2)	49 (19.5)	29 (18.2)	11 (10.4)	43 (15.1)	46 (19.8)
3. 성실함	45 (8.7)	20 (8.0)	14 (8.8)	11 (10.4)	22 (7.7)	23 (9.9)
4. 의견차이	32 (6.2)	19 (7.6)	5 (3.1)	8 (7.5)	12 (4.2)	20 (8.6)
5. 순종함	26 (5.0)	13 (5.2)	8 (5.0)	5 (4.7)	18 (6.3)	8 (3.4)
6. 소통이 됨	12 (2.3)	8 (3.2)	3 (1.9)	1 (.9)	6 (2.1)	6 (2.6)
7. 야망이 없음	11 (2.1)	7 (2.8)	3 (1.9)	1 (.9)	5 (1.8)	6 (2.6)
총합계	516 (100.0)	251 (100.0)	159 (100.0)	106 (100.0)	284 (100.0)	232 (100.0)

<표 4> 직업유형별, 성별 배우자를 신뢰/불신하는 이유

	전체(%)	직업유형별			성별	
		초등교사(%)	공무원(%)	연구원(%)	남(%)	여(%)
1. 배우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348 (62.8)	146 (55.5)	111 (64.9)	91 (75.8)	221 (72.0)	127 (51.4)
2. 성실함	77 (13.9)	40 (15.2)	22 (12.9)	15 (12.5)	37 (12.1)	40 (16.2)
3. 사랑하니까	59 (10.6)	34 (12.9)	16 (9.4)	9 (7.5)	27 (8.8)	32 (13.0)
4. 든든함	30 (5.4)	16 (6.1)	10 (5.8)	4 (3.3)	13 (4.2)	17 (6.9)
5. 책임감 부족	27 (4.9)	17 (6.5)	9 (5.3)	1 (.8)	7 (2.3)	20 (8.1)
6. 의견차이	13 (2.3)	10 (3.8)	3 (1.8)	-	2 (.7)	11 (4.5)
총합계	554 (100.0)	263 (100.0)	171 (100.0)	120 (100.0)	307 (100.0)	247 (100.0)

논의 및 결론

첫째, 성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의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들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역할, 그 자체를 무조건 믿는 것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4)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둘째, 희생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로 '희생함'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족을 돌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이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로 부모의 희생으로 밝힌 선행연구(Lee, Kim, & Park, 2005)와 같은 맥락이다.

셋째, 신뢰와 존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이유로 '존경함'이 있었다. 한국의 수직관계에서 신뢰의 바탕에는 존경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손주연(2017)의 연구결과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신뢰함'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가 안 감'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존경과 신뢰는 많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신뢰의 이유로 성실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로 '성실함'이 있었다. 선행연구(이상희, 2016)에서와 같이 성실함을 가장 자랑스러운 면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성실함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유교문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한국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유교전통의 뿌리가 남아(Kim & Park, 2000)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윤리가 올바르게 서야 사회윤리가 정립될 수 있으며, 성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닦아야 한다는 유교철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손주연 (2017). 한국 학생의 존경의식: 토착심리 탐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6).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자기개념에 대한 토착심리와 관련변인에 대한 탐구: 대안학교, 특성화고, 일반고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im, U.,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Lee, S. M., Kim, U., & Park, Y. S. (2005). The basis of trust and distrus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6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pril 2-5, Wellington, New Zealand.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손주연, 박영신, 신미자

인천새말초등학교

lunasun3@gmail.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한국 청소년 총 1,206명(남 580, 여 626; 초 297, 중 290, 고 300, 대 319)이었다. 측정도구는 Bandura(1995)가 제작하고 박영신과 김의철(2001)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이탈은 부모 존경과 부모 관련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도덕적 이탈에 대한 부모 존경과 부모 관련 변인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기대일치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이탈에 대한 부모 존경과 부모 관련 변인의 영향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만 유의하였으나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폭력과 일탈행동(박영신, 2015)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탈행동을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총 1,206명(남 580, 여 626; 초 297, 중 290, 고 300, 대 319)이었다. 측정도구는 도덕적 이탈은 Bandura(1995)가 제작하고 박영신과 김의철(2001)이 번안한 도덕적 이탈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도덕적 정당화의 신뢰도는 .69, 상대적 비교의 신뢰도는 .8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1>, <표 2> 참고)

연구결과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의 사회적 지원(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자녀관계(부모 희생, 부모에 대한 죄송함, 부모의 기대일치),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참고)

둘째, 도덕적 이탈에 대한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이탈에 부모의 기대일치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기대일치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감소시켰다. (<표 4> 참고)

셋째, 도덕적 이탈에 대한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영향력 있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집단은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표 6>, <표 7>, <표 8> 참고)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부모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은 도덕적 이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희생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 부모의 기대일치를 보다 적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탈청소년이 부모와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와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에게 부모의 기대일치 정도는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부모의 기대일치가 중요함을 시사한 선행연구(손주연, 2017)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부모의 과한 기대는 부모의 기대에 일치하지 못하게 하여 자녀의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영신 (2015).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학교폭력**.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 과정에 대한 종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손주연 (2017). 한국 학생의 존경의식: 토착심리 탐구. 인하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표 1> 분석대상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대	계
남	156	145	151	128	580
여	141	145	149	191	626
전체	297	290	300	319	1,206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신뢰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93
	정보적 지원	.88
	경제적 지원	.78
	부모희생	.88
부모자녀관계	부모 존경	.91
	부모에 대한 죄송함	.85
	부모의 기대 일치	.88
	부모에 대한 존경	.82
부모에 대한 효도		.86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당화	.69
	상대적 비교	.80

<표 3>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과 도덕적 이탈의 상관관계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의 사회적 지원			부모자녀관계			부모에 대한 효도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 희생	부모에 대한 죄송함	부모의 기대일치	
도덕적 이탈	-.11***	-.14***	-.14***	-.13***	-.10***	-.09**	-.15***	-.07*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전체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도덕적 이탈 전체	부모에 대한 존경	-.01	-.01	.17	.03	4.5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02	-.03			
	정보적 지원	-.02	-.03			
	경제적 지원	-.07	-.07			
	부모자녀관계					
	부모 희생	.06	.06			
	부모에 대한 죄송함	.00	.00			
	부모의 기대일치	-.09	-.11*			
부모에 대한 효도		.00	.00			

* $p < .05$, *** $p < .001$

<표 5>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초등학생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도덕적 이탈 전체	부모에 대한 존경	.00	.00	.23	.05	2.04*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03	-.04			
	정보적 지원	.03	.04			
	경제적 지원	-.06	-.06			
	부모자녀관계					
	부모 희생	-.11	-.11			
	부모에 대한 죄송함	.00	-.01			
	부모의 기대일치	.00	.00			
부모에 대한 효도		-.07	-.13			

* $p < .05$

<표 6>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중학생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도덕적 이탈 전체	부모에 대한 존경	.05	.05	.21	.04	1.55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02	-.02			
	정보적 지원	.06	.06			
	경제적 지원	-.22	-.16			
	부모자녀관계					
	부모 희생	.20	.16			
	부모에 대한 죄송함	-.06	-.06			
	부모의 기대일치	-.24	-.22			
부모에 대한 효도		.08	.09			

<표 7>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고등학생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도덕적 이탈 전체	부모에 대한 존경	-.03	-.05	.20	.04	1.57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01	.02			
	정보적 지원	-.06	-.10			
	경제적 지원	-.09	-.09			
	부모자녀관계					
	부모 희생	.14	.16			
	부모에 대한 죄송함	-.02	-.03			
	부모의 기대일치	-.10	-.14			
부모에 대한 효도		.02	.04			

<표 8>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대학생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도덕적 이탈 전체	부모에 대한 존경	-.01	-.02	.16	.03	1.08
	부모의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06	-.11			
	정보적 지원	.00	.00			
	경제적 지원	-.03	-.04			
	부모자녀관계					
	부모 희생	.09	.12			
	부모에 대한 죄송함	-.08	-.14			
	부모의 기대일치	.01	.02			
부모에 대한 효도		-.03	-.05			

부모 죽음 이후 자녀의 애도경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유경자, 손강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조교수
tel3125@hanmail.net, sks@sang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죽음의 애도과정 경험을 인지, 행동, 정서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죽음으로 상실을 경험한 10명의 중년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와 결론을 논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이 부모의 죽음 이후의 애도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 과정을 거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실제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둘째,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자녀의 경험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자녀들이 경험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녀들의 애도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친구가치관이 공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부모의 죽음 이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자녀의 애도 경험을 확인해 봄으로써 자식의 도리에 대한 인식과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행하는 효도의 개념으로써 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40~6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소요되는 시간, 녹음 동의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이후 반구조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의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① 개별 분석단계

② 개별 분석에 대한 교차검토 단계를 거쳐 불일치를 줄이고 ③ 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따른 결정을 하는 단계를 거쳤다. 분석단계 이후, Hoyt와 Bhati(2007)가 개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수행과정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 죽음 이후의 애도 경험에 대해 합의적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영역, 11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① (병환을 겪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안쓰러움(변동적) ②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전형적) ③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함(변동적) ④ 돌아가신 후에도 내 마음 속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받음(변동적)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두 번째 영역인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① 마지막 효도로서 부모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람(전형적) ② 부모님과 추억을 되새김(드문) ③ 언제나 고인과 함께 있다고 생각함(변동적) ④ 과거 부모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재평가(변동적) ⑤ 힘들었던 부모의 인생에 대한 공감적 이해(전형적)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① 부모를 위해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 기도함(변동적) ② 부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형제·자매와 함께 나눔(변동적)의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추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Newall, Chipperfield, Daniels, Hladkyj, & Perry, 2009). 참여자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라는 말을 떠올림과 동시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안쓰러움과 감사함, 죄책감 등의 정서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죽음을 기리고 자신의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고인이 된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상실의 애도과정에서 남은 혈육인, 형제·자매와 함께 상실의 감정을 서로 나누며 가족체제의 지지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과 부자자효(父慈子孝)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의 결과로써(이희완, 2016),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애도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애도과정을 탐색하지 않았다. 애도과정에 따른 탐색을 추가한다면 애도의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는 부모사별에 관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장하면서 탐색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희완 (2016). 우리나라 효행장려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171-188.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Newall, N. E., Chipperfield, J. G., Daniels, S. H. Hladkyj, & Perry, R. P. (2009). Regret in Later Life: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Regret Frequency, Secondary Interpretive Control Beliefs, and Health in Older Individua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성숙 박세호 박영신

인하대학교

jss2867@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성별, 배우자 유무별로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총 910명(남 398, 여 512; 배우자 있음 548, 배우자 없음 362)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 행동은 안부물음에 대표적이었다. 다음으로 자주만남, 보살펴 줌, 경제적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말을 통한 효도 지각은 건강하세요를 가장 대표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아껴주는 말, 안부 묻는 말, 순종하는 말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노인은 가장 감동이 되는 효도로 보살펴 줌, 경제적 도움, 자주연락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현재 자녀들 때문에 가장 기쁜 일은 손주로 인한 기쁨, 가정화목, 자녀가 잘 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평생 살면서 자녀들 때문에 가장 기쁜 일은 자녀가 잘 삼, 자녀의 성취, 가정화목 등의 순이었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성별, 배우자 유무별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총 910명(남 398, 여 512; 배우자 있음 548, 배우자 없음 362)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표 1> 참고).

연구결과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효도 지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자녀의 효도행동을 통한 효도 지각이

안부물음, 자주만남이 대표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있는 노인은 보살펴 줌, 배우자 없는 노인은 경제적 도움의 반응이 높았다.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안부물음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자주만남은 성별로 남성노인이,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 있는 노인의 반응률이 높았다(<표 2> 참고).

둘째, 자녀의 말을 통한 효도의 지각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껴주는 말, 안부묻는 말 등의 순이었다. 건강하세요는 전체 노인의 1/3이상이 응답한 대표적인 효도의 말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효도의 말은 남성 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이 안부묻는 말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은 사랑합니다로 응답하였다(<표 3> 참고).

셋째, 가장 감동이 되는 효도는 보살펴 줌, 경제적 도움, 자주연락, 자녀가 잘 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보살펴 줌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배우자 없는 노인이 배우자 있는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표 4> 참고).

넷째, 노인이 현재 자녀들 때문에 가장 기쁜 일은 손주로 인한 기쁨, 가정화목, 자녀가 잘 삼, 자녀의 성취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배우자 없는 노인집단은 가정화목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표 5> 참고).

다섯째, 노인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기쁜 일로 자녀가 잘 삼, 자녀의 성취, 가정화목, 손주로 인한 기쁨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남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은 자녀의 성취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여성 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은 자녀가 잘 삼의 반응이 가장 높게 나왔다(<표 6> 참고).

논의 및 결론

가장 감동이 되는 효도로 성별, 배우자 유무별에 상관없

이 보살펴 줌이 대표적이었다.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노부모 부양 인식(박영신, 박영자, 남인순, 2017)에서 노인의 성인자녀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세대가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보살펴 드림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의 행동과 노인이 지각한 감동이 되는 효도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은 현재 기쁜 일로 배우자 있는 노인은 손주로 인한 기쁨을, 배우자 없는 노인은 가정화목을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성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를 탐색한 연구에서 가정화목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3). 노인에 한정된 본 연구에서도 가정화목은 현재 기쁜 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인은 한평생 자녀로 인한 가장 기쁜 일로 여성 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은 자녀가 잘 사는 것이었으며, 남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은 자녀의 성취였다. 자녀의 성취의 항목 중 학업성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로 받은 대리 성취감(박영신, 김의철, 2004)은 자녀가 이미 학업을 수행한 후임에도 노인에게 한평생 기쁜 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도로 지각한 자녀의 행동으로 여성 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은 안부물음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은 자주만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로 남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 여성 노인과 배우자 없는 노인이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남성 노인과 배우자 있는 노인이 안부물음 보다 자주만남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효도로 지각함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 박영신, 박영자, 남인순 (2017).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409-449.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3).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2), 153-184.

<표 1> 분석대상

(단위: 명)

구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남	156	85	398
여	235	277	512
전체	548	362	910

<표 2> 자녀의 행동을 통한 효도 지각: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남(%)	여(%)	있음(%)	없음(%)
1. 안부물음	280 (32.3)	104 (27.4)	176 (36.2)	170 (31.8)	110 (34.1)
2. 자주만남	162 (18.7)	85 (22.4)	77 (15.8)	107 (20.0)	52 (16.1)
3. 보살펴 줌	110 (12.7)	52 (13.7)	58 (11.9)	72 (13.5)	38 (11.8)
4. 경제적 도움	105 (12.1)	49 (12.9)	56 (11.5)	62 (11.6)	42 (13.0)
5. 자녀가 잘 삼	70 (8.1)	30 (7.9)	40 (8.2)	41 (7.7)	28 (8.7)
6. 마음 편하게 해줌	68 (7.9)	26 (6.8)	42 (8.6)	41 (7.7)	27 (8.4)
7. 다양한 행동	39 (4.5)	19 (5.0)	20 (4.1)	27 (5.1)	10 (3.1)
8. 가정화목	29 (3.3)	13 (3.4)	16 (3.3)	11 (2.1)	16 (5.0)
9. 기타	3 (.3)	2 (.5)	1 (.2)	3 (.6)	-
총합계	866 (100.0)	380 (100.0)	486 (100.0)	534 (100.0)	323 (100.0)

<표 3> 자녀의 말을 통한 효도 지각: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남(%)	여(%)	있음(%)	없음(%)
1. 건강하세요	280 (36.2)	123 (35.7)	157 (36.6)	176 (36.1)	101 (36.2)
2. 사랑합니다	116 (15.0)	45 (13.0)	71 (16.6)	74 (15.2)	41 (14.7)
3. 아껴주는 말	102 (13.2)	43 (12.5)	59 (13.8)	65 (13.3)	35 (12.5)
4. 안부물은 말	101 (13.0)	50 (14.5)	51 (11.9)	57 (11.7)	44 (15.8)
5. 순종하는 말	88 (11.4)	48 (13.9)	40 (9.3)	65 (13.3)	23 (8.2)
6. 감사합니다	42 (5.4)	18 (5.2)	24 (5.6)	24 (4.9)	17 (6.1)
7. 용돈 드릴게요	21 (2.7)	8 (2.3)	13 (3.0)	12 (2.5)	9 (3.2)
8. 잘 살고 있습니다	18 (2.3)	7 (2.0)	11 (2.6)	10 (2.1)	7 (2.5)
9. 기타	6 (.8)	3 (.9)	3 (.7)	4 (.8)	2 (.7)
총합계	774 (100.0)	345 (100.0)	429 (100.0)	487 (100.0)	279 (100.0)

<표 4> 가장 감동이 되는 효도: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남(%)	여(%)	있음(%)	없음(%)
1. 보살펴 줌	255 (32.2)	108 (30.7)	147 (33.4)	147 (29.8)	105 (36.2)
2. 경제적 도움	152 (19.2)	67 (19.0)	85 (19.3)	99 (20.0)	52 (17.9)
3. 자주연락	109 (13.8)	47 (13.4)	62 (14.1)	57 (11.5)	51 (17.6)
4. 자녀가 잘 삼	102 (12.9)	49 (13.9)	53 (12.0)	66 (13.4)	35 (12.1)
5. 마음 알아 줌	51 (6.4)	23 (6.5)	28 (6.4)	42 (8.5)	8 (2.8)
6. 가정화목	49 (6.2)	19 (5.4)	30 (6.8)	34 (6.9)	15 (5.2)
7. 다양한 행동	38 (4.8)	14 (4.0)	24 (5.5)	28 (5.7)	9 (3.1)
8. 손주로 인한 감동	20 (2.5)	11 (3.1)	9 (2.0)	14 (2.8)	6 (2.1)
9. 없음	16 (2.0)	14 (4.0)	2 (.5)	7 (1.4)	9 (3.1)
총합계	792 (100.0)	352 (100.0)	440 (100.0)	494 (100.0)	290 (100.0)

<표 5> 현재 자녀를 때문에 가장 기쁜 일: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남(%)	여(%)	있음(%)	없음(%)
1. 손주로 인한 기쁨	190 (23.9)	75 (21.5)	115 (25.8)	126 (25.5)	62 (21.4)
2. 가정화목	180 (22.6)	65 (18.6)	115 (25.8)	101 (20.4)	74 (25.5)
3. 자녀가 잘 삼	137 (17.2)	56 (16.0)	81 (18.2)	88 (17.8)	49 (16.9)
4. 자녀의 성취	111 (14.0)	62 (17.8)	49 (11.0)	76 (15.4)	34 (11.7)
5. 보살펴 줌	72 (9.1)	35 (10.0)	37 (8.3)	47 (9.5)	25 (8.6)
6. 없음	58 (7.3)	35 (10.0)	23 (5.2)	30 (6.1)	26 (9.0)
7. 자주연락	47 (5.9)	21 (6.0)	26 (5.8)	27 (5.5)	20 (6.9)
총합계	795 (100.0)	349 (100.0)	446 (100.0)	495 (100.0)	290 (100.0)

<표 6> 한평생 살면서 자녀를 때문에 가장 기쁜 일: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남(%)	여(%)	있음(%)	없음(%)
1. 자녀가 잘 삼	255 (31.8)	88 (24.6)	167 (37.5)	150 (29.9)	100 (34.5)
2. 자녀의 성취	242 (30.2)	115 (32.2)	127 (28.5)	159 (31.7)	80 (27.6)
3. 가정화목	114 (14.2)	56 (15.7)	58 (13.0)	70 (14.0)	41 (14.1)
4. 손주로 인한 기쁨	72 (9.0)	35 (9.8)	37 (8.3)	49 (9.8)	23 (7.9)
5. 보살펴 줌	58 (7.2)	35 (9.8)	23 (5.2)	40 (8.0)	18 (6.2)
6. 자주연락	22 (2.7)	11 (3.1)	11 (2.5)	13 (2.6)	9 (3.1)
7. 없음	20 (2.5)	12 (3.4)	8 (1.8)	11 (2.2)	9 (3.1)
8. 자녀양육	19 (2.4)	5 (1.4)	14 (3.1)	9 (1.8)	10 (3.4)
총합계	802 (100.0)	357 (100.0)	445 (100.0)	501 (100.0)	290 (100.0)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심리: 학업성취별 성별 분석

차연실, 이영숙, 박영신

인하대 학교

chayeonsil@nate.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총 298명(주관적 학업성취별 상 74, 중 142, 하 82; 남 145, 여 153)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과 싫은 점은 학업, 없음, 친구관계가 대표적이었으며, 학업성취 상집단은 없음을, 여학생은 학업 다음으로 친구관계를 지적하였다. 학업성취 하집단과 여학생은 다른 집단보다 학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없음, 학업, 친구관계 등의 순이었다. 학업성취 하집단은 학업의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중학생이 가장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는 피곤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시간, 학업부담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없음, 피곤함, 학업부담, 수업시간이 대표적이었으며, 학업성취 중집단과 여학생은 피곤함을, 하집단은 학업부담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였다.

연구목적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부적응 심리를 학업성취별, 성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내용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싫은 점, 적응하기 어려운 점,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때,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로 인해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관한 문제가 해소 및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학생 총 298명(주관적 학업성취별 상 74, 중 142, 하 82; 남 145, 여 153)이었다. 학업성취 집단은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상집단은 매우 잘함과 약간 잘함을, 중집단은 중간, 하집단은 약간 못함과 매우 못함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학업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없음, 친구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하집단에서 학업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부담을 더 받으며, 친구관계도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싫은 점도 학업이 대표적이었다. 이어서 없음, 친구관계의 어려움, 교사와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더 많이 응답하여,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 참고).

둘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은 학업성취 상집단과 남학생이 없음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학업, 친구관계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3> 참고).

셋째,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는 피곤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시간, 학업부담, 없음 등의 순이었다(<표 4> 참고).

넷째,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없음, 피곤함, 학업부담, 수업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중집단과 여학생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집단에서 학업부담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표 1>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학업성취별 성별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	여
1. 학업	107 (40.5)	20 (29.9)	49 (39.2)	38 (52.8)	44 (36.7)	63 (43.8)
2. 없음	68 (25.8)	24 (35.8)	34 (27.2)	10 (13.9)	42 (35.0)	26 (18.1)
3. 친구관계	33 (12.5)	11 (16.4)	15 (12.0)	7 (9.7)	4 (3.3)	29 (20.1)
4. 수업시간	24 (9.1)	6 (9.0)	12 (9.6)	6 (8.3)	8 (6.7)	16 (11.1)
5. 교사와의 관계	12 (4.5)	1 (1.5)	8 (6.4)	3 (4.2)	12 (10.0)	-
6. 아침 일찍 일어나기	9 (3.4)	2 (3.0)	2 (1.6)	5 (6.9)	3 (2.5)	6 (4.2)
7. 기타	11 (4.2)	3 (4.5)	5 (4.0)	3 (4.2)	7 (5.8)	4 (2.8)
계	264 (100.0)	67 (100.0)	125 (100.0)	72 (100.0)	120 (100.0)	144 (100.0)

<표 2>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싫은 점: 학업성취별 성별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	여
1. 학업	89 (34.5)	17 (25.4)	38 (31.4)	34 (48.6)	34 (28.6)	55 (39.6)
2. 없음	61 (23.6)	21 (31.3)	31 (25.6)	9 (12.9)	37 (31.1)	24 (17.3)
3. 친구관계의 어려움	34 (13.2)	13 (19.4)	13 (10.7)	8 (11.4)	10 (8.4)	24 (17.3)
4. 교사와의 관계	21 (8.1)	6 (9.0)	11 (9.1)	4 (5.7)	17 (14.3)	4 (2.9)
5. 엄격한 교칙	21 (8.1)	5 (7.5)	7 (5.8)	9 (12.9)	9 (7.6)	12 (8.6)
6. 열악한 학교환경	17 (6.6)	5 (7.5)	10 (8.3)	2 (2.9)	6 (5.0)	11 (7.9)
7. 수업시간	13 (5.0)	-	9 (7.4)	4 (5.7)	6 (5.0)	7 (5.0)
8. 기타	2 (.8)	-	2 (1.7)	-	-	2 (1.4)
계	258 (100.0)	67 (100.0)	121 (100.0)	70 (100.0)	119 (100.0)	139 (100.0)

<표 3>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 학업성취별 성별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	여
1. 없음	92 (37.4)	28 (43.8)	48 (40.7)	16 (25.0)	47 (42.3)	45 (33.3)
2. 학업	58 (23.6)	8 (12.5)	25 (21.2)	25 (39.1)	24 (21.6)	34 (25.2)
3. 친구관계	31 (12.6)	12 (18.8)	10 (8.5)	9 (14.1)	8 (7.2)	23 (17.0)
4. 엄격한 교칙	16 (6.5)	5 (7.8)	8 (6.8)	3 (4.7)	6 (5.4)	10 (7.4)
5. 교사와의 관계	15 (6.1)	2 (3.1)	9 (7.6)	4 (6.3)	11 (9.9)	4 (3.0)
6. 수업시간	13 (5.3)	2 (3.1)	6 (5.1)	5 (7.8)	5 (4.5)	8 (5.9)
7. 새로운 환경	10 (4.1)	1 (1.6)	7 (5.9)	2 (3.1)	4 (3.6)	6 (4.4)
8. 열악한 학교환경	8 (3.3)	3 (4.7)	5 (4.2)	-	4 (3.6)	4 (3.0)
9. 기타	3 (1.2)	3 (4.7)	-	-	2 (1.8)	1 (.7)
계	246 (100.0)	64 (100.0)	118 (100.0)	64 (100.0)	111 (100.0)	135 (100.0)

<표 4>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때: 학업성취별 성별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	여
1. 피곤함	65 (24.3)	18 (25.7)	32 (26.0)	15 (20.0)	30 (24.4)	35 (24.1)
2. 수업시간	51 (19.0)	16 (22.9)	23 (18.7)	12 (16.0)	22 (17.9)	29 (20.0)
3. 학업부담	34 (12.7)	3 (4.3)	19 (15.4)	12 (16.0)	17 (13.8)	17 (11.7)
4. 없음	33 (12.3)	13 (18.6)	12 (9.8)	8 (10.7)	17 (13.8)	16 (11.0)
5. 친구관계	21 (7.8)	7 (10.0)	6 (4.9)	8 (10.7)	3 (2.4)	18 (12.4)
6. 몸이 아플 때	19 (7.1)	4 (5.7)	8 (6.5)	7 (9.3)	8 (6.5)	11 (7.6)
7. 기분이 나쁨	16 (6.0)	3 (4.3)	8 (6.5)	5 (6.7)	10 (8.1)	6 (4.1)
8. 날씨가 안 좋음	9 (3.4)	2 (2.9)	6 (4.9)	1 (1.3)	2 (1.6)	7 (4.8)
9. 항상	7 (2.6)	1 (1.4)	1 (.8)	5 (6.7)	5 (4.1)	2 (1.4)
10. 교사와의 관계	7 (2.6)	1 (1.4)	6 (4.9)	-	7 (5.7)	-
11. 기타	6 (2.2)	2 (1.4)	2 (1.6)	2 (2.7)	2 (1.6)	4 (2.8)
계	268 (100.0)	70 (100.0)	123 (100.0)	75 (100.0)	123 (100.0)	145 (100.0)

<표 5> 중학생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학업성취별 성별

	전체(%)	학업성취별(%)			성별(%)	
		상	중	하	남	여
1. 없음	56 (21.8)	20 (29.4)	24 (20.0)	12 (17.4)	32 (28.1)	24 (16.8)
2. 피곤함	50 (19.5)	10 (14.7)	27 (22.5)	13 (18.8)	16 (14.0)	34 (23.8)
3. 학업부담	41 (16.0)	8 (11.8)	19 (15.8)	14 (20.3)	18 (15.8)	23 (16.1)
4. 수업시간	40 (15.6)	14 (20.6)	17 (14.2)	9 (13.0)	20 (17.5)	20 (14.0)
5. 친구관계	16 (6.2)	5 (7.4)	4 (3.3)	7 (10.1)	4 (3.5)	12 (8.4)
6. 귀찮을 때	13 (5.1)	1 (1.5)	7 (5.8)	5 (7.2)	5 (4.4)	8 (5.6)
7. 기분이 나쁨	11 (4.3)	5 (7.4)	4 (3.3)	2 (2.9)	4 (3.5)	7 (4.9)
8. 몸이 아플 때	11 (4.3)	2 (2.9)	4 (3.3)	5 (7.2)	6 (5.3)	5 (3.5)
9. 교사와의 관계	6 (2.3)	1 (1.5)	5 (4.2)	-	6 (5.3)	-
10. 놀고 싶음	5 (1.9)	2 (2.9)	1 (.8)	2 (2.9)	1 (.9)	4 (2.8)
11. 기타	8 (3.1)	-	8 (6.7)	-	2 (1.8)	6 (4.2)
계	257 (100.0)	68 (100.0)	120 (100.0)	69 (100.0)	114 (100.0)	143 (100.0)

논의 및 결론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학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부담은 학업성취 하집단과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 학교 부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상집단과 남학생은 학업부담이 적게 나타나 학교 부적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업부담이 많은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의철, 박영신, 200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학업부담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 부적응이 높아지며, 학업부담을 적게 받을수록 학교 부적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과 싫은 점, 어려운 점은 학업 다음으로 친구관계를 지적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친구관계의 어려움, 교사와의 관계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지형, 2017)와 친구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어려움이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토착심리로서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2008)와도 일치한다.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구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 흥미를 유발시켜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Ⅱ):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박영신 (2015). 청소년용 학교 부적응 질문지.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이지형 (201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특성 분석: 부산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5), 245-274.

사진 전시회



『INDIA 1312 Ladakh』 寫眞展

사람들의 인도여행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아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으며 문명과 자연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할 한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선호도는 젊은 층이 높다. 배낭여행으로 젊은이들의 첫 여행지로 선택되기도 한다.

나는 어쩌다 세 번의 인도를 보고 왔다. 첫 번째는 파키스탄 국경과 접한 라자스탄지역, 두 번째는 아그라, 갠지스 바라나시와 안나푸르나가 있는 네팔 포카라, 카투만두, 세 번째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인도 최북단 Ladakh였다.

세 번의 인도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올 수 있었다. 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알팍하나마 종교와 사상을 접하였고, 척박한 땅 한 여름에 만 이방인에게 허락되는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숨소리와 그들이 살아가는 땅냄새를 맡으면서 묵언의 탄성과 감동에 젖어야만 했다.



여행사진가
윤영진



라다크 다하누마을 아리안족

‘인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 아니 어찌 보면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척박한 환경, 아직도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도인들 특별히 인도에 살지만 생김새가 전혀 다른 라다크인들의 삶을 보면서 말이다.



세 번의 인도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 India쪽 Ladakh 지역이었다. 라다크를 가는 방법은 육로와 항로가 있다. 육로는 뉴델리에서 마날리를 통해 2~3일 걸리는 험한 지형이다. 라다크 지역은 워낙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인해 육로가 열리는 시기는 6~9월로 제한적이다. 항공으로는 뉴델리에서 라다크 수도 레(leh)까지 2시간이면 쉽게 갈 수 있다.

Ladakh의 주도 레(leh)는 해발 3,500m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인 5,603m의 카라둥라가 있다. Ladakh Tour에는 고산증이 동반된다.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설사 등 경증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 고산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 또한 고산증으로 톡톡한 아픔과 고통을 손 하나 못쓰고 그대로 경험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Ladakh를 다시 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라다크 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다크 수도 레(leh)의 남갈곰파(Nagyal Gompa)



Ladakh는 빈 손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DSRL에 담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DSRL에 담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현상처럼 들어오고 있다. 아직도 Ladakh는 가봐야 할 곳이 많다. 7일간의 짧은 시간에 마주친 라다크의 얼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안다. 그래서 다시 가고픈 이유다.



카라둥라(5603M) 정상에서 바라본 라다크



누브라 바લી 훈더 지역

『INDIA 그리고 LADAKH』 사진전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대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늘가는 길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